



**「“김경 6·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”
의혹 제기」(1.13., 녹색경제신문),
「진종오 “김경,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”」
(1.13., 디지털타임스) 등 다수 보도 관련**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,
○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.
-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
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	책임자	과장 김홍수 (044-200-2698)
		담당자	서기관 류준호 (044-200-2699)